



Built to Lead

즉시 배포용: 2016년 3월 9일

주지사 **ANDREW M. CUOMO**

CUOMO 주지사, ANTHONY GERMAN 소장이 뉴욕주 방위군의 군무국장으로 봉직할 것이라고 발표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Anthony German 소장을 뉴욕주 제53대 군무국장으로 선임하였음을 발표하였습니다. German은 Oneonta 주민으로서 현재 뉴욕주 공군 방위군 사령관이며 또한 군무국장보로서 봉직하고 있습니다.

German은 Patrick Murphy 소장 후임입니다. Murphy 소장은 2010년부터 군무국장으로 봉직하였는데, 현직을 떠나 워싱턴 DC의 주방위군국 전략기획정책국제업무 담당 국장으로 봉직할 것입니다.

“Anthony German 장군은 우리 나라와 주를 헌신적으로 섬긴 주 방위군 리더로서의 영예로운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그는 군사 업무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고 오며 그의 새 역할에서 우리 군의 태세를 강화하는 데 계속 진력할 것입니다.”

“본인은 뉴욕주 방위군을 위한 Patrick Murphy 장군의 많은 기여에 감사합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덧붙였습니다.** “Murphy 장군은 군무국장으로서는 예외적인 직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는 주 방위군이 표상하는 봉사와 리더십을 체화하였으며 본인은 그가 중요한 새 도전을 시작함에 따라 그에게 행운을 빕니다.”

German은 1983년에 미공군에서 항공기 항법사로 임관되었으며 1989년에 뉴욕주 공군 방위군의 제109 수송비행단에 합류하였습니다. Scotia 소재 Stratton 주 공군 방위군 기지의 제109 수송비행단은 미군 유일의 스키 구비 항공기인 LC-130 항공기를 운행합니다. 이 수송비행단은 남극대륙 및 그린란드에서 국립과학재단의 연구 노력을 지원합니다.

German은 이 수송비행단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지휘하였습니다. 그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뉴욕주 공군 방위군의 참모장으로 봉직하면서 2011년 열대성 폭풍 Irene 및 Lee와 2012년 슈퍼폭풍 Sandy에 대한 뉴욕주 방위군 대응에서 뉴욕주 공군 방위군 참여를 조율한 핵심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German은 또한 국방장관실 예비역 업무과에서 국립과학재단을 위한 국방부 연락

장교로서도 봉직하였습니다. 그는 최근에 주 공군 방위군의 국장 대행으로서의 30일 임무를 완료하였습니다.

German은 C-130 Hercules 및 기타 항공기에서 4,900여 비행 시간을 가진 마스터 항법사입니다.

뉴욕주 군무국장으로서는 German은 뉴욕주 육군 방위군의 10,300명 군인과 뉴욕주 공군 방위군의 5,600명 군인의 대비 태세 및 훈련을 책임질 것입니다.

군무국장은 또한 뉴욕주 해군 방위군도 책임집니다. 해군 방위군은 2,900명인데 그 대부분은 현재 해군, 해병대 및 해안경비대 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비상시 뉴욕주 임무에서 자원 봉사도 합니다. 비상시 주 방위군을 지원하는 뉴욕주 세력인 또 다른 600명이 뉴욕주 방위군에서 자원 봉사합니다.

German은 SUNY Oneonta에서 학위를 받았으며, 미해군 전쟁대학과 펜실베이니아주 Carlisle Barracks의 선임 예비역 구성 장교 과정을 이수하였습니다.

훈포장으로는 훈공장, 군무공로훈장, 공군 훈장, 전투태세훈장, 남극대륙 군무 훈장, 국방 훈장, 인도적 봉사 훈장 등이 있습니다.

German은 Oneonta에서 부인 Diana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4명의 자녀 Josh, Ben, Zach 및 Bekah가 있습니다.

German은 4월에 새 임무에 취임할 것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